

권광택 위원장

북 콘서트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권광택(權光澤) 경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위원장 북 콘서트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가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1월 31일 오후 2시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 홀에서 안동권씨원료원 회원, 문중, 유림, 기관단체, 도의원 및 시의원,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대형화환도 300여개나 된다.

권광택 부부는 행사장에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었으며 영남홀 입구에는 권광택이 지은 "길"이라는 책을 권 당 2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영남 홀 1, 2층을 가득 메운 행사장에는 노해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식전행사로 남성중창단 행복을 주는 사람 6인조가 '우정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무대 아래에선 대구 경북특별시청 소재지는 경북도청소재지 안동으로! 라고 쓴 현수막을 펼쳐두고 입장객 모두가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힘찬 함창으로 안동으로! 안동으로! 안동으로! 삼창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1부는 노해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국민의례, 내빈소개, 권광택 활동상황을 동영상으로 방영한 후 장병의 학교법인경안학원 이사장과 권순태 전 국립경국대(옛 국립안동대) 총장이 각각 축사를 하였다. 이어 김형동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 왔으며 메시지가 끝나자 이성화씨(김형동 국회의원 부인)가 축사를 하였다.

메인 행사인 북 토크를 하기에 앞서 권광택 부부는 단상에 올라가서 입장객을 향하여 큰절을 올린 후 송여경 아나운서와 함께 대화를 하였다. '권광택의 정도 안동(正道安東) 시민의 결에서 새로운 안동을 향한 동행'이라는 부제에 책 제목을 "길"이라고 출간한 이 책은 111페이지에 내용은 사진과 함께 행정의 무게, 사람의 중심에서 지방의 길, 통합보다 사람, 균형과 복지의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걷는 길, 함께 내는 목소리 등이 수록돼 있다.

2010년 안동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시의원 3선, 도의원 재선을 하고 있는 권의



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동의 지킴이로 살아온 삶의 여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써 정치를 통한 사회 기여의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오랜 기간 교육행정 분야에 몸담은 경험과 의정활동 분야를 차분히 정리한 기록으로 안동의 발전을 위해 걸여온 발자취를 담아내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시민 12명과도 함께 단상에서 질의응답도 하였다. 권 의원은 정치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민원에 누구보다 먼저 귀 기울였고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는 의정보고회로 자신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사이 열심히 일한 보고서 1부씩을 참석자 전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도청 신도시 활성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추진 등 12가지 의정활동 주요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도민의 위한 조례 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안동 경안고, 안동대, 안동대행정경영대학원을 각각 졸업, 안동 건동대학교에서 16년 근무하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권오을 장관과 권홍사 회장 대종회 방문 격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지난 12월 30일 대종회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오을 장관과 권홍사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근처를 지나가는 길에 지나칠 수 없어 들렀다면서, 권홍사 회장은 예

전에는 자주 방문했었는데 근간에는 못했다 앞으로는 방문하는 기회를 가급적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나후된 대종회 회관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운곡서원 정알레 봉행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 정알레(正謁禮)가 23일 오전 11시 운곡서원 경덕사(景德祠)에서 김진선(金鎭善) 향유사(鄕有司)를 비롯 서예가 권태은(權泰殷) 후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

다. 정알레에 이어 오는 4월 23일 봉행될 춘향 헌관과 집례 대축을 선정, 망(望)을 보내는 조집 행사도 가졌다.

권오신 좌운공파회장

권태중 캐나다 알버타대학 교수 연구석좌교수에 임명

권태중 캐나다 알버타대학 공과대학 교수가 지능형 및 회복탄력적 교통시스템(Intelligent and Resilient Transportation Systems) 분야의 알버타대학교 공과대학 연구 석좌교수(UAERC)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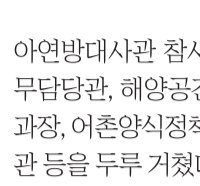
연구석좌교수는 연구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다.

이번 임명은 권태중 교수의 리더십과 전문 분야의 지식 발전에 대한 탁월한 기여와 헌신, 연구 및 혁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잠재력을 반영한 것이다. 권태중 교수는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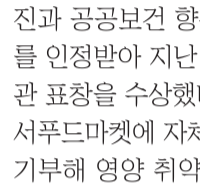
권행완 편집국장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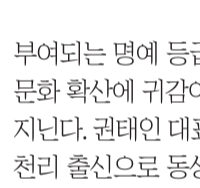
▲ 권순욱 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9일 제43대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취임했다. 권 신임 원장은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주러시아연방대사관 참서관과 해수부 규제법무담당관, 해양공간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관, 기초실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해양수산분야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산정책, 수산물 안전관리, 해양환경 등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합리적 리더십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권세남 하늘수학연구소 원장이 15년간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향하며 다양한 질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원장은 서울강서푸드마켓에 자체 개발한 건강식품을 기부해 영양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부터 서울특별시한약사회 회장을 맡아 한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능 단체와 협력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



▲ 권태인 영한산업(주) 대표가 지난 19일 문경시 최초 안티소사이어티 실버 회원이 됐다. 안티소사이어티 실버 회원은 누적 기부금 3억 원 이상을 기부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명예 등급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권태인 대표는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출신으로 동성초등학교와 경북중·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에서 전기·통신·소방 분야 사업을 일구며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성장했으며, 영한산업(주)을 운영하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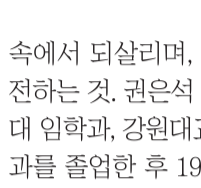


▲ 권석환 상명대학교 중국어권지역학전공 교수가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진포청(陳蒲淸) 교수와 함께 약 7년간의 연구와 번역 끝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심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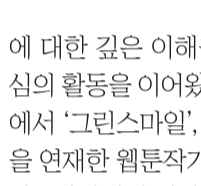


질》중국어 번역본을 홍콩에서 출간했다. 권석환 교수와 진포청 교수는 지난 35년간 <삼국유사>, <금오신화>, <한국고전문학정화> 등 다수의 한국 고전문학 작품을 중국 현지에서 출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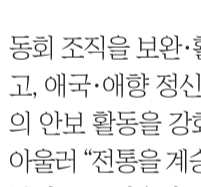
▲ 권은석 춘천문화원장이 지난 4일 제13대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신임 회장의 목표는 지역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오늘날의 삶속에서 되살리며,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 권은석 회장은 춘천고, 강원대 입학, 강원대학교육대학원 농업교육과를 졸업한 후 1972년 중등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춘천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 권혁주 작가가 제30대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권혁주 신임 회장은 작가와 교육자의 길을 동시에 걸어온 인물로, 웹툰 및 만화 창작 생태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네이버웹툰에서 '그린스마일', '움비처럼', '센카' 등을 연재한 웹툰작가로, 지난 6년간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1963년 창립된 한국만화가협회는 대한민국 만화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웹툰 및 만화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한국 만화 문화의 국내외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권병호 제21대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2월 11일 취임했다. 권병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이 중심이 되는 강한 향군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동회 조직을 보완·활성화해 기반을 다지고, 애국·애향 정신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안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을 계승하되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성남향군으로 도약하겠다"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약속했다.



추밀공파 석주공 종중 정기총회 개최



권경일 회장이 공류시 낭독하며 설명하고 있다.



권경일 이사장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권구현 학생

추밀공파 석주공(石洲公) 종중(회장 권경일) 정기총회가 2월 22일 11시 중랑구 망우로 353 상봉이노시터에서 권경석 전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일 회장, 권순석 사무국장 등 130여 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석주(石洲) 권필(權鵬, 22세, 1569~1612)은 문충공 양촌 권근의 넷째 아들 안숙공(安肅公)의 후손으로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나 선조 때 당대 문단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유명했다. 광해군 3년에 임숙영(任叔英)은 임금의 책문에 대책을 구하는 임금에게 지금의 문제는 바로 임금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임금의 시정을 비판했다가 고된 시련을 겪었다. 이를 지켜보던 석주는 '공류시(宮柳詩)'를 지어

풍지했다. 그 유명한 공류시는

宮柳青青花亂飛(공류청청화난비)
대궐 벼들 푸르고 어지러이 꽃 날리니
滿城冠蓋媚春暉(만성관개미춘훈)
성안 가득 벼슬아치 봄볕에 아양 떠네
朝家共賀昇平樂(조가공합승평락)
조정에선 입 모아 태평세월 하례하나
謠言解遣出布衣(요언해원출부의)
누가 시켜 선비의 입에서 바른말 하게 했나

그러나 이 공류시는 임숙영 사건에 기쁨을 부는 형국이 됐다. 광해군은 석주 권필을 직접 국문하고

나섰다. 광해군은 격노했다. 석주는 광해군의 노여움에 혹독하게 매질 당하고 귀양길에 올랐다. 동대문 밖을 나서자 지인들이 건네주는 막걸리에 장독이 솟구쳐 절명하고 말았다. 나이 43세였다. 이 공류시(宮柳詩) 한 편으로 올곧고 당대의 뛰어난 선비였던 석주의 운명은 바뀌고 말았다.

14대 직손 권경일 회장은 붓글씨로 '공류시'를 직접 써서 족자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후손들에게 낭독하며 설명해 주었다. 붓글씨에 입문한 지 10여년 되었다는데 솜씨가 범상치 않다. 권경일 회장은 설명 말미에 우리 석주공 후손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양반 자손임을 인지하고, 자긍심을 갖고 정정당당히 살아가 주기를 당부하고 조상의 덕을 고맙게



느끼고 종중에도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장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에서부터 대학생까지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웃으면서 행사장에 들어서는 장면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그중 권구현(12세) 학생은 엄마 아빠를 따라 누나와 함께 왔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고 누나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오니 어떡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 만나니 좋다고 했다.

석주장학회(이사장 권경일)에서는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을 장학생으

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도 역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에게는 입학 축하금으로 축하했다. 권경일 이사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안동권문의 자랑스런 아들 딸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회와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와 장학금 수여식이 끝나자 가족끼리 또는 형제간끼리 용기증기 모여서 웃으면서 때로는 안부를 물으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앞으로 종친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모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권행완 편집국장